

사순 제 4 주일

기도서 264 면(B해)

제1독서 : II역대 36, 14-16, 19-2

제2독서 : 에 폐 2, 4-10

복음 : 요 한 3, 14-21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요한 3, 21).

☐ 감론



사랑의 하느님

박진량 신부

우리가 금욕과 절제의 생활을 해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리라 믿는다면, 그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 보속해야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느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서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또 이빨은 이빨로, 눈은 눈으로 갠 그런 식의 정의의 하느님이 아니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느님은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쳐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그런 분이신데도,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식욕을 절제하고 지배욕과 명예욕을 버리고 죽기까지 고통을 참아 받으라고 명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비가 풍요하신 그 하느님께서 재를 지키라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느님이 왜 재를 지키며 고통을 참아 받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고통의 오묘한 관계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모든 고통이 다 사랑에서 연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를 돕고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욕망을 만족시키는 만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만 사랑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런 일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인간이 최악의 불행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사랑의 육화이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원동력은 예수께서 죽기까지 참아 받으신 그 고통이 아니라 죽을까지라도 감내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느님을 믿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베풀시다!
(팔마 주임신부)



다시 읽는다

—노동자 문제

지난 3월 10일은 제40회 근로자의 날이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JOC) 담당주교이며 우리 교구장이신 박주교님은 “노동자 사목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회의 관심이나 뚜렷한 대안은 아직 미미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우리 교구의 가톨릭 신문 보급율이 너무 저조하기에, 노동문제에 관한 주교님의 말씀을 간추려 옮겨 본다. -가톨릭 신문 3월 10일자 1면 참조)

1. 노동문제는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젊은층의 문제인만큼 교회는 보다 뚜렷한 시각으로 연구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열악한 노동환경·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현실에 대해, 교회가 직접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앉아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함께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2. 불우한 한국적 여건때문에 일어나게 된 노동관계법 개정 서명운동에 대해서 정부는 공정한 입장에서 검토, 시행(개정)해야 한다.
3. 70년대 후반 가톨릭 농민회나 도시산업 선교회 등이 매스컴에 의해 관계 빨갱이화한 덕분에 노동문제에도 악순환이 거듭돼왔다. 블랙리스트에 의한 해고사태가 빈발함은 심각한 문제로 지난해 이리 아세아 스와니 사건은 그런 문제가 표면화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4. 70년대의 어려움을 겪고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 JOC는 문제 해결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 교회는 정의와 평화, 사랑을 부르짖고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며,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소리를 내어 비판하고 가르쳐야 한다.
5. JOC 역시 본연의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 겸손과 인내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야 한다.

숲정이 산책



청동같은 소리

이것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 2:16(마태 21:13)



성전정화 기사(記事)는 공관복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에도 나온다. 이것은 사람들의 주의(注意)를 끄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공관복음에는 성전정화 이야기가 예수 전도생활의 최후에 나오는데, 요한 복음에는 예수 전도생활의 최초에 나온다.

「성전정화」는 예수의 단순한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충동에 가까운 것에 의한 것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대한 의의(意義), 목적(目的)을 동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는 아버지이신 성부의 집이 성숙이종(聖俗二種)의 상인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음을 보고, 그때야 격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심한 바를 단행한 것인데, 이것은 하느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모세 율법에 의한 형식예배의 구약시대가 종식을 고하게 되고, 영(靈)과 진(眞)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신약시대의 경종이 울리게 된다. 이것은 말라기 3장(章)의 내용이 실현된 것이다(말라 3:1-5). 참으로 이것은 「놀랄만한 권위」였던 것이다.

예수 사업에 있어서 「성전정화」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것은 「알파」였고, 「오메가」였다. 이것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여기에 예수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느님의 집인 「자기」를 정결케 하고, 「가정」을, 「국가」를, 그리고 「전 인류」를 정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찬 생존 의의이다. 오늘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구제하는 「길」은 「성전정화」에 있는 것이다. 미사의 참다운 뜻을 알고 미사 참례하는지?

하느님 뜻에 순응한 성요셉 II

또한 요셉의 생애는 침묵과 노동과 기도로 일관되었다. 침묵 가운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율법대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다시 되찾았을 때에도 마리아만 말했을 뿐 요셉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와서도 침묵 중에 하느님의 뜻만 따라 근면한 생활을 함으로써 성인이 되었다. 하느님이 원하셨을 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유일한 소망으로 살으셨다.

성요셉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느님의 뜻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다. 요셉에게는 하느님의 법이라는 유일한 법이 있을 뿐이었다.

우리도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 드린다면 그만큼 빨리 완덕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만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만약 하느님의 손에 쥐어져 마음대로 모양을 낼 수 있는 밀초와 같다면 얼마나 빨리 완덕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다”고 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 삶이 단 하루 뿐일지라도 많은 나날을 우리의 계획대로 한 것보다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요셉도 하느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기 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찾았다.

때론 하느님의 뜻 앞에서 모순을, 비합리적인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게 된다.

성요셉께 우리도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모든 덕의 모범이신 성요셉이여 당신은 사랑과 노동으로 일관된 침묵과 종교적 사회적 규정의 이행과 하느님의 뜻에 온순히 따름으로써 높은 성성과 큰 영광에 이르셨으니 이같은 당신의 정신을 우리에게도 얻어 주소서. 주께 빌으시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해 주시고 사후덕과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얻게 해주소서.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센타**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주. 윤 베드로

MISUNG 성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벨트·지갑·기타
피혁소품

☎ 교환 72-0551-5
72-0561-5
김혜겸(클라라)

- 혼수(회갑)웃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넥터

도매상

서울주단

☎ ③0453 ⑤05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② 8653



□ 교구 병자사목 본격적으로...

교구 사회복지 사목부는 육체적 병고로 고통당하는 병자사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작년 8월부터 전북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담 수녀를 파견했다.

방문을 통하여 신자 환자와의 만남으로서 육체적 고통을 위로하고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위로와 예비선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환자 가족들과도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많은 이용을 바라면서 가족이나 이웃 형제들이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교구 사목국에 연락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담당수녀 대학병원 근무시간

* 병실방문 : 매주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 병자성사 및 봉성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연락처 : 전주 0041~3 사회복지 사목부

드디어 나왔다! 한국 천주교 200년의 금자탑,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 천주교회는 200년의 역사를 가졌으나 우리에게는 교회생활에 알고 싶고 궁금한 지식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전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손으로 한국 가톨릭 대사전을 간행하므로 200년의 소원이 풀리게 되었다.

이 사전은 200년 교회 문화를 총정리한 책으로 천주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거의 담겨 있는 교회 지식과 상식의 창고이다. 이 책은 각계의 권위자들이 총동원되어 책임을 지고 집필하였으며 5년의 각고 끝에 만들어졌다. 신자의 가정이라면 성서와 함께 꼭 갖추어야 할 보배이며, 유산으로 물려줄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 사전의 보급에 사명을 느끼고 사전을 간행한 한국교회사 연구소와 같은 기관인 전주교구 호남교회사 연구소가 보급활동에 나섰다.

이 책의 구성은 총 항목수 5천여 항목(한국관계 2천여 항목), 4×6배판 호화양장 총 1,700면(본문 1,300면, 부록 400면)으로 되어 있다. 정가는 6만원이다. 구입 방법은 본당 방문이나 아래 주소로 주문하면 즉시 배달된다.

구입처 : 전주시 진북동 1026의 2 호남교회사 연구소. 전화 09449

□ 숲정이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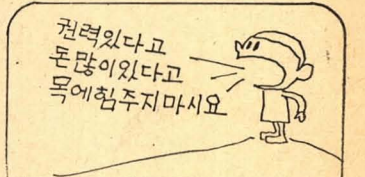
준비되었는가?

‘사랑과 진실’이라는 TV 연속극에서 죽어가는 딸아이를 붙들고 “넌 나빠! 난 아직 널 떠나보낼 준비가 안되었는데 이래로 가면 어떡해!” 하면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사람은 누구나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는 고통스런 마음일 수 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죽음으로써 이별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살아서 이별하는 쓰라림도 있겠고 죽어서 이별하는 아픔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온갖 나눔에 있어서 성실해야 될 것이다. 이것만이 헤어지면서 겪는 고통을 반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헤어짐의 현장에 서서 우리 믿음의 정신을 발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별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느님,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라고 부르짖을 수 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 이별 뒤에 숨겨진 하느님의 보다 큰 뜻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또 있겠는가?

요십이 (606)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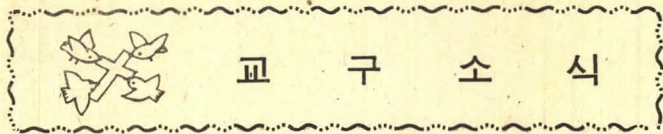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부문 : 일반(사무)직 남자 ○명
 2. 응시자격 : ①천주교 신자 ②고졸 이상 학력소지자 및 동등 학력소지자 ③병역 필한자 또는 면제자
 3.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사진 첨부) ②신자증명서 ③졸업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4. 접수기간 : 85.3.18~3.30. 17:00
 5. 접수처 : 당조합 총무과 (☎ 07522)
 6. 전형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 및 실기
 7. 전형일시 : 85.4.13. 16:00
 8.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9.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 숲정이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강노

학원생 수시 모집 (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 데레사(금순)
☎ 09206 · 05289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기계) 明光 輪工 (철강)
각종 정밀기어류 제작 | 특수강, 후판, 대원강봉
일반산업용 기계제작 수리 | 기계류 Ø320, Ø450절단판배
대형정밀선반 Ø850×4000mm | R.S 체인(등보)대리점
공장 04427 02655 야간 01397
군산시 장재동 380-9(경성고교 상단)
조 용 덕(라우렌시오)



1. 성소자 모임(예비신학생) : 17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고, 대, 일반 남자(사제성소에 관심있는 자), 주제-믿음의 성장
 2. 3월중 꼬미시움 회의 : 일시-17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L.M 회의실
참석대상-각 꾸리아 간부 및 직속 브레서더움 간부 전원
 3. M.E 정주시 지역 사도직 "참 부모가 되는 길" 소개 모임 : 일시-17일, 장소-정주 시기동본당(공식미사 후)
 4. 신앙대학(교사학교) : 개학식 18일 오후 7시30분, 가톨릭 센터, 추가모집-3월 18일~4월 2일까지
 5. 마니피캣 단원 모집 : 대상-성가에 관심있는 가톨릭 대학생 및 예비신자
일시-3월 18일~24일 오후 5시30분~7시, 장소-가톨릭 센터 교육관
 6. 사제 어머니 모임 : 20일 오후 2시, 강덕행 신부님 어머니님백(신수탕)
 7. 신학생·성소자 부모 피정 : 일시-23일부터 24일까지, 접수-23일 오후 4시, 대상-신학생 성소자 부모 및 관심 있는 분, 주제-주여 당신 종이 왔나이다. 회비-1인당 4천원(부부동반일 경우 6천원)
 8. 1차 중·고지도자 연수회 : 일시-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터 교육관, 대상-각본당 중·고지도자
내용-교제연구, 지도력 향상, 회비-2천원, ※ 참가시 각본당 중·고지도자 명단 지참하시기 바람
 9. 3월중 은혜의 밤 및 철야기도회 개최 : 일시-30일(토) 오후 9시~31일 오전 6시까지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대상-모든 교우들
 10. 제 6기 예비자반 영세식 : 일시-3월 31일(일) 오후 7시, 장소-가톨릭 센터 3층 강당, 주제-박정일 주교
 11. 대학생 사상강좌 : 연제-종교와 문학, 연사-송기숙 교수, 일시-3월 31일(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강당
 12. 중·고 회장단 및 간부연수 : 31일 10시~오후 5시, 대상-각본당 중·고등학생 임원
준비물-필기도구·미사도구, 참가비-1,500원 ※ 학생회 현황 당일 지참
- ◎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 : 축! 영명 축하드립니다.
김 종택, 안 복진, 배 영근, 유 장훈, 정 승현, 나 궁열, 김 순태, 조 정오, 강 덕행, 서 광석 신부

전주시 진북2동 1144-1 주임신부 김 종 길 사도회장 김 수 결	<h2 style="margin: 0;">숲 정 이</h2> <h2 style="margin: 0;">천 주 교 회</h2>	사 제 관 ③ 7 3 6 6 수 녀 원 ③ 9 5 6 7 사 무 실 ③ 7 3 6 6
---	---	---

1. 미사시간 안내
 - 주일 : 새벽미사-6시, 공식미사-오전 10시
어린이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7시
 - 평일 : 월요일-6시, 수요일-10시, 화·목·금요일-오후 7시, 토요일-오후 6시30분
 2. 예비자교리 안내
 - 화요일 : 오전 10시-이베로니카 수녀
 - 수요일 : 오후 7시30분-김체필리아 수녀
 - 목요일 : 오후 7시30분-남자반(본당신부, 이종욱)
 - 일요일 : 오전 11시-이베로니카 수녀
 3. 모임 :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 ②신영세자 모임(84년도)-24일 공식미사 후
 - ③꼬미시움 회의-오늘 오후 2시 전동성당
(각 pr담당 참석 요망)
 - ④구역장 모임-23일 오전 10시
 4. 부녀회 피정 : 20일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회비-2천원, 사무실에 접수 바람
 5. 부활 성가연습 : 25일 오후 7시30분부터
 6. 꾸리아 부단장 : 장진순씨
 7. 숲정이신협 직원 채용 : 남자 ○명
 8. 미사안내 : 금주-구세주 모후, 차주-하늘의 문pr
 9. 금주전례 : 해설-강원모,
독서-기도-이규철·이은자
 - 차주전례 : 해설-강원모,
독서-기도-김경주·김영희
- 지난주 봉헌금 : 249,120원 교무금 : 392,000원